

#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위원회안)

의안 번호	4675
----------	------

제안연월일 : 2013. 4.

제안자 : 외교통일위원장

##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4월 21일과 23일 일본부총리를 포함한 일부 각료들과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도조 히데키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일본총리가 일제의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망언을 한 것에 대해 도를 넘은 비이성적 망동과 망언으로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의 일부 각료 및 국회의원들이 과거 대한민국과 중국 등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무고한 국민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처참한 고통을 가한 일제군국주의 만행에 대하여 뼈를 깎는 철저한 반성과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죄 없이 비뚤어진 역사인식에 근거하여 몰염치한 망언과 망동을 계속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동북아 우호선린관계의 구축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수없는 시간이 흘러도 씻을 수 없는 일본제국주의의 죄과와 만행을 잊지 않고 있는 아시아 각국과 그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과 양심적인 국민들이 잘못된 군국주의 망령의 부활을 방지할 경우 일본은 향후 아시아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지위를 모두 상실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부총리 등 일부 각료와 다수의 일본국회의원들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과 일본총리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과거 일제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발언을 일삼은 것에 대해 이러한 비이성적 망동과 망언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구축과 동북아 평화정착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외교적 도발 행위라는 점에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일본 자신의 미래와 아시아의 미래를 위하여 더 이상 태평양전쟁의 전범을 참배하는 비이성적 망동과 부정할 수 없는 과거를 부정하려는 어리석은 망언을 중지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처절한 고통을 초래한 일본의 과거에 대하여 철저히 반성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죄를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부총리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일본총리의 침략전쟁 부인 망언 등 군국주의 회귀 움직임에 대하여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부총리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일본총리의 망언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과 그 국민 그리고 국제사회가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 제안이유

지난 4월 21일과 23일 일본부총리를 포함한 일부 각료들과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도조 히데키 등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일본총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1995년 8월의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지 않겠다는 등 일제의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망언을 한 바,

이러한 일본 일부인사들의 몰역사적·비이성적 행태와 언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비뚤어진 과거사 인식과 진실에 대한 왜곡에 근거한 이러한 몰염치한 언행은 양국 간 우호선린관계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평화와 번영에 심각한 장애가 됨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하여 이러한 몰염치한 망동과 망언에 대하여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단호한 의지로 엄중히 대처할 것을 촉구하고, 아시아 각국과 국제사회에 일본 내 일부인사의 잘못된 행태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엄중히 대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